

공개편지

수신:

레시프 타이프 에드도간 터키 대통령님

무스타파 센토프 국회의장님

압뿔하미트 귤 법무장관님

슐레이만 소일루 내무 장관님

독일의 외무부 장관님

요세프 보렐 유럽 외교담당관님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 재판소 앞

우리는 전세계의 예술가들로서 살해 당한 기자와 투옥된 기자들의 초상을 만들어 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작한 초상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설흔 아홉 명의 기자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실리브리(Silivri)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곳에도 강하게 번져 있습니다. 2020년 5월 22일자 공식보고에 따르면 이미 82명이 감염되었으며 한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코로나 특사라 하여 일반 폭력범들을 풀어 주면서도 기자들은 계속 가두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널리스트 아흐메트 알탄은 질리브리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소식을 보내 왔습니다.

„내 나이 일흔에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해저 감옥에 앉아 죽음의 공포를 맞는다는 것이 어떨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지요. (...) 감방에서 심한 고통으로 다가와 나와 같은 늙은이를 죽음으로 몰고갈 다가올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나는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자이지 않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인류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대책 없이 놓인 다음 저널리스트들을 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스타파 에르칸 아카르 – 파루크 아칸 – 툰카이 아코런 – 아흐메트 알탄 – 휘세인 아이딘 – 메흐메트 바란수 – 오스만 칼리크 – 괴크체 피라트 쿨하오글루 – 야쿠프 세틴 – 무틀루 실게센 – 하비프 켈러 – 누 괴닐타스 마흐무트 – 켈레산 – 에르칸 권 – 세르칸 세다트 귀라이 – 울마츠 카라만 케말 – 아츠미 칼리온쿠

히다예트 카라차 – 바이람 카야 – 압둘라 킬리크 – 세이드 킬리크 – 무하메드 사이트 쿨로글루 – 알리 쿠스 – 아흐메트 메니스 – 알리 외츠파룬 – 에르달 쉰 – 아흐메트 메틴 세키츠허데스 – 에프레 손칸 야쿠프 심세크 – 우푸크 산리 – 위날 타니크 – 뭉타처 튀르코네 – 무스타파 위날 – 오구츠 우슬루에르 – 쿠마 울루스 – 페브치 야치키 – 아이쿠트 일디르 휘다베르디 일디림 – 예트킨 일디츠

이 저널리스트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입장문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하며

일차 연명인: Dipl.des.Susanne Köhler (화가) Vorstand Wahrheitskämpfer e.V., Gerhard Keller (교사) Vorstand Wahrheitskämpfer e.V., Manfred Gutberlet (무역교사) Vorstand Wahrheitskämpfer e.V.(진실전사 협회), Rafaela Bodenstedt (교사), Prof. Dr. Barbara Bühnemann-Dietrich, Franco Foraci (TV 저널리스트), Jan Niemeier (교육자), Pater Wolfgang Jungheim, Martina Feldmayer (연합 90/녹색당 헤센주의회 원내 부대표), H. Schweiger (은퇴자), Christian Lugerth (배우), Prof. em. Friedel Kriechbaum, Prof.em. Heinz

Bauer, Jürgen Sandmüller, (수의사), Christina Hermann (예술가), Paul Hermann (보험사), Christine Krahe (아트 디렉터/일러스터), Christoph Krahe (경제공학사), Dr. Thomas Ormond, Helga Grost, (은퇴자) , Sigmar Ohme, (은퇴자), Eberhard Klein, (목사), Joachim Schaefer, (예비목사), Martin Krauß (경제전문인), Ernestine Kuger-Hoberg (예술가), Hans Kuger (교사), Lucia Makelis (예술가)

이하 생략